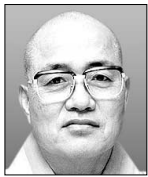


일주문



거제 장애인시설 '반야원' 개원 사회복지법인 '내원' 이사장 정현 스님은 6월 26일 오후 2시 장애인요양시설인 거제도 '반야원' 개원식을 개최한다. (051)242-0691



관음사 청신사회 7월 법회서 법문 수행 율주사 주지 정각 스님은 6월 26일 송광사 부산 분원 관음사 청신사회 창립 7주년 기념법회에서 특별 법문을 한다. (051)294-9300



'승찬대사 신심명' 강의 서울 법련사 주지 보경 스님은 7월 1일부터 9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승찬대사 신심명' 강의를 갖는다. (02) 733-5322



인터넷상담봉사자 전문화 교육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은 6월 30일 개발원 상담실에서 인터넷상담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02)737-8803



해초 스님 주재 강연 고려대 강사 정수일 씨는 조계종 교육원 부설 서울불교전문강당에 초청돼, 6월 29일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해초 스님을 주제로 강연한다. (02)732-4923



익산 미륵사지로 석불전건순례 한국석불선양회 이귀인 회장은 7월 4일 전북 익산 태봉사, 미륵사지 일대로 50회 석불전건순례법회를 떠난다. 016-267-7945



통도사에서 하계수련회 개최 전국전력인불자연합회 이인규 회장은 6월 19-20일 양산 통도사에서 2004년도 정기 합동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BBS 사장에 이성언 씨

진흥원 이사회서 추천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자)은 6월 14일 이사회를 열고 불교방송 사장 후보에 이성언 씨(주식회사 GS인터네셔널 대표이사·사진)를 만장일치로 선출, 15일 불교방송재단에 추천했다.

이성언 사장 후보는 1949년 경남 밀양 출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71년 제10회 행정고시에 합격, 일본홍콩영사관과 대사관 공보관을 역임했다. 95, 96년 공보처 광고진흥국장과 신문방송국장을 역임하고 1999년 문화관광부 관리관(1급)으로 명예 퇴직했다. 김원우 기자

“정진과 집중이 사념처 수행의 근본”

동국대 정각원서 특별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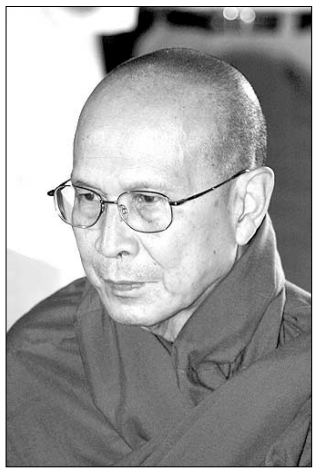
“정진과 마음집중, 확철은 사념처 수행의 필수조건이며 몸, 마음, 느낌, 법을 중심으로 전심전력해서 명확히 깨닫는 것이 사념처 수행의 근본입니다.”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산)은 6월15일 미얀마 아비담마(논장)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우 실라난다(U Silananda·사진) 스님을 모시고 “미얀마의 아비담마 연구”를 주제로 특별 법회를 열었다. 초기 불교

의 이론적 지점이 되는 아비담마 철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열린 이번 법회에는 일반 불자와 교직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스님은 이날 강연에서 “상좌부 불교는 강하고 균형 잡힌 정신력과 주의력 그리고 통찰력을 통해 생사윤회의 속박에서 인간을 해탈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팔리어로 쓰여진 남방 상좌부 경전 중 장부 2경인 <사문과경>같은 경전이 인간의 정신과 삶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미얀마

우 실라난다 미얀마 불교대 총장



불교의 특징을 설명했다. 스님은 “한국의 아비담마 연구 수준에 대해 잘 몰랐지만 <아비담마 상해>가 <아비담마 길라잡이>로 번역된 것을 알고 놀랐다”며 한국불교학의 연구 수준을 높이 평가했다.

스님은 지난 6차 세계불교도결집대회에서 팔리 삼장 편집장을 지냈으며 현재 미얀마 불교대학 총장으로 미얀마 현지의 사원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선원에서 위빠사나 명상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신계사·영통사 복원 남한 불자들 호응에 감사”

6·15 4주년 대회참석 심상진 조불련 서기장

“남·북한 모두 내 나라 내 민족입니다. 고향에 온 듯 편안합니다. 어서 빨리 통일이 돼,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선불교도련맹(이하 조불련) 중앙위원회 심상진 서기장(사진)이 6월 14-17일 인천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 “우리민족대회”에 북한 불교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심 서기장은 박태화 조불련 위원장과 함께 남북 불교 교류를 통해 가장 널리 알려진 북한 불교계 인물이다. 그의 남한 방문은 이번이 처음.



용천사고 관련 정토회 도움커

“금년 안으로 개성 영통사 복원 공사를 마무리짓게 됩니다. 남한 천태종이 기와와 상당량의 자재를 지원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계사 대응전과 3층 석탑의 복원 공사에 조계종의 도움으로 올해 내에 끝맺을 생각입니다. 모두 남북 불교계가 공조한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남한 불자들이 감사합니다.”

심 서기장이 남한 불자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이다. 심 서기장은 최근 북한 불교계의 움직임에 전하며, 특히 최근 용천역 사고 복구에 남한 불교계가 도와 준 것에 대해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용천역 사고가 발생한 직후 남한 정토회가 보내 준 의약품과 물자가 인명 구조와 피해 복구에 큰 힘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남북이 하나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법륜 스님과 정토회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리영식 조선불교신도회장과 함께 남한을 방문한 심 서기장은 인천에 머물며 남한 불교계 대표들과 만나 불교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불교 대중화 밑거름 쌓기 지역 언론인 불심 모을터

대구·경북 불교언론인회 송병국 회장



“언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특별한 만큼 불교계에서도 지역 언론불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대구경북불교언론인회도 출범 5년을 넘었으니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주제로 불교에 대한 일반사회의 관심을

모으겠습니다.” 6월 10일 불교TV 대구지사에서 개최된 대구경북 불교언론인회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3대회장 송병국 건설위원(대구문화방송 아트센터건설본부·54·사진)은 “회원 모임 중심의 대구경북불교언론인회 활동을 한 차원 높여 불교의 대중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교계와 대화를 갖고 회원들과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또 “대구경북 불교언론인회의 교육과 수련활동을 정례화해 불교언론인들의 신심을 깊게 하고 우애를 다질 수 있는 다양한 신행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인 중에는 진리를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며 회원 중에는 처음 불법을 접하는 경우도 꽤 많다”는 송 회장은 이들에게 깨달음으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불교언론인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개개인이 깊이 깨달을 수 있을 때 불교언론인회의 대 사회적 활동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불교언론인회는 현재 대구와 경북지역의 방송과 신문 11개사 소속 7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송 위원장은 대구문화방송 보도국 제작부장, 편집부장 보도국장 등을 역임했다.

공부·사회활동 적극 전개 방침

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호국영령·은평구민 위한 기원법회



서울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와 은평구청 불심회는 6월 1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구청 대강당에서 ‘제16회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보훈단체 회원 및 청빈공무원 자녀 17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대한경불회, 창립3주년 기념 수련회



대한민국경향불교회는 6월 12-13일 부산 범어사 설립전에서 창립 3주년 기념 수련회를 개최했다. 범어사 주지 대성, 강화 전 등사 주지 계성 스님 등 회원 2백여 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에서는 우리말 의식 수련, 참선, 임원단 정기 회의 등이 진행됐다.

위덕대, 1학기 평생교육원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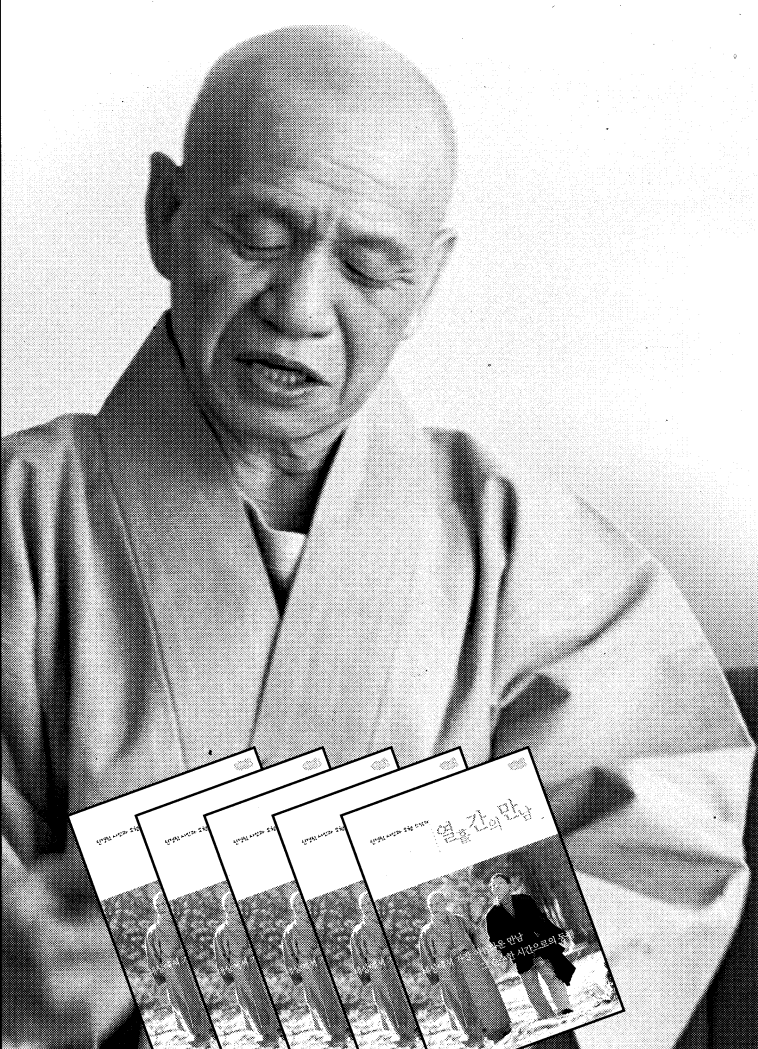
경주 위덕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이영기)은 6월 10일 지혜관 대강당에서 2004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원 수료식을 실시했다. 총 45개 과정 860여 명의 수료생들이 참석한 수료식에서 이영기 원장은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불기협, 공주 마곡사서 상반기 연수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원우)는 6월 12-13일 공주 마곡사에서 상반기 연수회를 개최했다. 불교기자협회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에서는 마곡사 표교국장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법’ 강좌,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언론에서 극찬한 화제의 책



신경림 시인과 오현 스님의 여흔 간의 만남

형식에 관계없이 잡다한 얘기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스님들의 삶에 있어 내가 궁금해 하던 것들에 대한 대답을 스님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었다. 나 자신을 포함 불교에 다가가려는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얘기가 스님의 말 속에서 허다히 찾아진다는 점, 만남을 가지면서 버버 즐거웠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 신경림 -

KBS 9시 뉴스방영! · MBC·YTN 뉴스 방영! 스님과 시인의 특별한 만남 - 동아일보

수행과 문학의 고수(高手)가 만나 사랑·욕망 등 7가지 주제를 묻고 답한다. - 조선일보 급한 마음 붙들고라도 천천히 두 사람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곳곳에서 반짝거리는 지혜를 만나게 된다. - 중앙일보

시와 선이 만나는 곳엔 서로 구분지을 수 없는 깨달음의 웃음 한바탕 - 한겨레 승속(僧俗)의 경계를 넘은 ‘아름다운 교감’ - 한국일보

삶을 치열하게 살아낸 이들과 가릴 수 없는 통찰과 여유가 돋보인다. - 문화일보 세상사와 인생을 밀어붙여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 또한 진천하게 털어놓는다. - 경향신문

지난 겨울 두 사람이 백담사에서 열 네 차례 만나 ‘내공’을 겨루다. - 한국경제

신국판 변형 | 280면 | 값 9,800원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45번지 | Tel. 02 - 2011 - 1880~1 | Fax. 02 - 720 - 6019 | 아름다운 인연은 조계종 출판사의 자회사입니다.

